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공간 구축

무주군, 스마트 경로당 1차 년도 사업 55곳 완료… 개통식 가져

무주군이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 중인 가운데 27일 1차년도 사업 완료도를 알리며 무주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6천2백만 원을 투입해 2개년(2024~2025년) 사업으로 진행한다.

1차 년도 사업분인 55개 경로당에는 화상회의·학습서비스, 치매예방·헬스케어 서비스, 생활안전·화재감지 서비스 시스템을 모두 갖췄으며 경로당마다 화상회의 장비와 체성분 측정기, 혈압 측정기, 치매예방 AI, 무선 화재 감지기 등이 설치돼 활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회의와 교육,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날 개통식도 해당 경로당 55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용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등 의미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떨리서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이라니 참 신기하고 좋다”라며 “올내까지 꼭 나가 지 않고도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무주군이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 중인 가운데 27일 1차년도 사업 완료를 알리며 무주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기대가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나머지 45개 경로당에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한 교육, 건강,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통식에서 환영을 무주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은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어르신 맞춤형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오락과 여가, 소통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노인복

지 서비스의 표준화와 효율화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를 뛰어넘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가 누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 한 해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방침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외에도 독거노인 통합 돌봄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27일 불철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배중수 산림과장이 관내 산불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산불 감시초소 긴급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철저한 사전 대비·신속 초기 대응 등 당부

장수군은 27일 불철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배중수 산림과장이 관내 산불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확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가 ‘실각’ 단계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최 군수가 직접 지역 내 산불감시초소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 군수는 계북면 원촌리, 장계면 명덕리, 장수읍 노곡리 등 7개 읍면 감시초소 현장을 찾아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산불 감시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앞서 최 군수는 전날 오전 주재한 주요 간부회의에서도 전국 산불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감시초소 운영 인력과 장비 상태, 근무 환경 등 산불 대응 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불철 산불 발생의 80%가 이 시기에 집중되며 산림 내 임목 축적 증가,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피해가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진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33명 입국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

27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는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33명이 입국해 농가주 15명과 반가운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33명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



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방문하여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신규 근로자들이다.

이 날 농가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맞이하고 더불어 군청 인력지원팀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한 애로 사항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후 관리 민간 위탁 기관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로부터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베트남, 영어 언어 소통 도우미, 상담 직원들을 소개 받는 등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오픈마켓 판촉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등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입점한 지역 내 단체 및 기업, 농가를 대상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상반기 판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입점 단체 및 기업, 농가는 ‘적상면 복숭아 연구회’와 ‘여름 두릅 작목반’ 등 18곳으로 무주군은 사업비

4천8백여만 원을 투입해 △오픈마켓 내 상세 페이지 제작과 △20% 할인쿠폰,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행사 배너 디자인, △기획전 지원 등 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에 도우며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열려

진안군은 27일 진안농협 대회의실에서 진안을 등 7개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농협 등 기관간 협력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추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방 진료, 치과대학에서 구강 검사를 실시했다. 다비치안경원에서는 시력 측정을 하고, 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돋보기를 지원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추후 백운농협(백운, 성수), 부귀농협(부귀, 정천)에서도 추진 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